

담론적 억압의 실패: 여성 경험의 재창조로서의 『고블린 마켓』

강선미

1. 서론

『고블린 마켓』(*Goblin Market*) 읽기는 다양하고 일견 서로 양립적인 방법론들을 거치며 계속되어 왔다. 시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동화, 나뉘진 자아의 초상, 섹슈얼리티에 대한 환상, 자매애에 대한 우화 등으로 해석되었고(Holt 51), 여기에 ‘종교/도덕적 우화’와 ‘여성 글쓰기’라는 코드가 추가된다. 단순한 동화부터 섹슈얼리티에 대한 급진적 논의까지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은 『고블린 마켓』에 등장하는 성적인 소재와 장면들이다. 보다 정확하게는, 크리스티나 로제티(Christina Rossetti)가 종교에 헌신하며 평생 독신의 삶을 살았던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이라 간주될 수 있는 장면들을 담대하고 비관습적으로 그려냈기 때문에 시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고 말할 수 있다. 비평가 프랜시스 토마스(Frances Thomas)는 로제티가 종교에 헌신했던 빅토리아조 여성으로, 성에 다소 무지했고 당대 독자들도 이 시를 성적으로 읽지 않았으리라 추측하며 현대의 성적 해석을 경계한다(170). 하지만 빅토리아조 사람들이 성에 대해 보수적이고 억압적이었다고 해서, 그들이 성에 대해 무지하고 침묵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성에 대해 말하고 ‘담론’을 통해 그것을 규제함으로써 성을 특정한 방향으로 마름질해냈다(Adams 126). 이때 정숙한(decent) 여성들은 성에 대해 무지했다기보다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도록 교육받고 강요당했다. 빅토리아조 여성들이 담론에 의해 규율 당했던 것처럼, 토마스는 로제티의 시를 아직도 빅토리아조 담론에 묶어놓는 셈이다. 크리스티나 로제티가 적극적으로 경험한 다양한 사회활동의 기록은 그녀가 성이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무지하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그녀는 오빠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Dante Gabriel Rossetti)가 당대에 큰 영향을 미쳤던 라파엘전파(Pre-Raphaelite)의 리더격이었던 덕분에 다른 여성들에 비해 예술가, 문인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았고, 1850년대에 여성 종교단체의 사회 활동에 참여해 매춘 여성을 돕기도 했으며, 1854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Florance Nightingale)을 따라 크림 전쟁에 참여하려 했다(Carpenter 421). 크리스티나

로제티가 당대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녀가 담론의 관습에 얽매어 상상 속 빅토리아조 여성의 삶을 살았다기보다 글쓰는 여성으로서 담론의 구성 과정에 개입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자 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 전제를 염두에 두고 읽을 때, 『고블린 마켓』은 혼란 도덕시로 환원되는 오류를 피해간다.

『고블린 마켓』은 손쉽게 ‘타락과 구원,’ ‘욕망과 절제’의 대비로 읽힌다. 시에서는 두 사람 모두 금발인데도 ‘로라(Laura)의 타락’과 ‘리지(Lizzie)의 절제’가 남기는 인상 때문인지, 1970년 출간된 엘렌 러스킨(Ellen Ruskin)의 동화 속 삽화와 독자들이 직접 그린 그림은 로라를 금발, 리지를 갈색머리로 그리고 있다.¹⁾ 하지만 어찌 보면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교훈으로 끝나는 식상한 이야기인 듯한 이 시는 전혀 다른 교훈을 전달한다. 결국 이 시의 마지막 교훈은 “자매만한 친구는 없다”(there is no friend like a sister; 562)이기 때문이다.²⁾ 『고블린 마켓』은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과 금기, 경험에 대한 이야기다. 시는 주어진 억압적 담론을 내면화한 여성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 여성의 욕망과 경험을 다른 시각으로 다루는 대안적 담론을 제공하고, 여성에게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목소리를 넘겨준다.

2. 담론의 억압과 실패

고블린들은 와서 과일을 사가라고 “아침 저녁으로” 외친다(1, 302). 이 외침은 비단 로라와 리지에게만 들리는 게 아니라 『고블린 마켓』의 모든 “치녀들”에게 들리는 소리이다(2). 고블린들은 로라와 리지가 “매일 저녁” 주전자를 들고 물을 뜨러 가야만 하는 “시내 옆 골짜기 주변”에 출몰해 그녀들을 유혹한다(32, 306). 로라와 리지로 대표되는 치녀들의 일상은 고블린의 유혹과 피할 수 없는 접점을 이루고 있다.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저녁나절 물을 길러 가야만 하는데도 치녀들은 “우리는 고블린을 봐서는 안 되고, 그들의 과일을 사서도 안 돼”라는 금기를 내재하고 있다(42-43). “황혼은 치녀들에게 좋지 않다”는 금언 또한 앞서 얘기한 삶의 조건과 충돌하지만, 리지는 이 말을 믿고 따름으로써 안전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144). 금기는 실례를 통해서 강화된다. 리지가 고블린에 대해 느끼는 강한 두려움의 근원에는 지니(Jeanie)의 죽음이 반면교사로 자리잡고 있다. 리지는 함부로 고블린의 과일을 먹고 죽음에 이른 지니의 경우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한다(364).

“고블린을 훔쳐보면 안 돼”(You should not peep at goblin men; 49)라는 명령의

1) <http://www.whitneysaurer.com/goblinmarket/>

2) 시는 행, 비평서는 페이지로 표기한다.

‘peep’은 ‘훔쳐보다’라는 뜻으로 ‘보다/보여서 보다’라는 뜻의 ‘see’나 ‘쳐다보다/의식적으로 보다’라는 뜻의 ‘look at’과 다른 위상을 가진다.³⁾ ‘훔쳐보는 톰’(Peeping Tom)의 일화에서도 드러나듯이 ‘훔쳐보기’라는 행위는 금지된 것을 은밀하게 욕망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여기에는 주체의 욕망과 그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가 개입된다. 고블린들은 항상 존재하지만 그들을 보지도 듣지도 말라는 것, 특히 절대로 훔쳐봐서는 안 된다는 금기는 욕망의 가능성을 전제하되 그 표출을 억압하고 욕망의 주체에게 모든 의무와 책임을 지운다. 로라와 리지에게 고블린들을 보면 안 되고 처녀들은 황혼에 나타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준 사람은 누구인가? 작품의 말미에서 엄마가 된 로라가 아이들에게 교훈을 전달하듯, 이 얘기 또한 로라와 리지의 상징적 부모로부터 나온 얘기일 것이다.⁴⁾ 로라와 리지는 작품에 선행하는 억압적인 담론을 습득한 상태로 등장한다.

처녀들이 고블린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데도 절대로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고 불가능을 강요하며 억압을 자행하는 이 “나쁜 교육”의 폐해는 이어지는 로라와 리지의 행보에서 잘 드러난다. “천성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호기심 많으며”, “단 것을 좋아하는” 로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익히 알고 있음에도 눈앞의 화려한 과일이 유혹하자 손쉽게 마음이 동해 “마지막 절제의 끈을 놓아버린다”(53, 69, 115, 86). 아무리 금기가 존재한다고 한들 고블린들의 목소리가 “친절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듯이” 들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79). 로라가 ‘훔쳐보기’(peep)에서 고블린들과의 만남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무런 죄의식이나 망설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다. 말로 이루어진 금기가 그녀의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함을 보여주는 예이다. 반대로, 리지는 끝까지 금기를 지키려 노력한다. 그녀는 고블린을 보지 않고 그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애쓰지만 그렇다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막연히 위협적이고 매력적인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67-68). 눈 감고 귀 막는다고 고블린과 과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두 손으로 귀를 덮어 봤자 과일의 향긋한 내음까지 피할 수는 없다. 유혹과 공포 사이에서 갈등하던 리지는 혼자 그 유혹에서 달아나는 길을 선택한다. 리지는 도피를 통해서 빅토리아조에 특히 강조되었던 극기라는 덕목을 보여주는 듯하다(Adams 127). 이때 극기는 도피를 통해서만 유혹과 경험에 대응하고, 절제를 통한 자율과 자기완성 과정에서 타인을 유기한다는 점에서 그 단어가 표상하는 도덕성과 고결함을 보여주지 않는다. 로라와 리지 어느 쪽도 담론이 이들에게 가했던 행동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다. 처음부터 매일을 살아가는

3) 크리스티나 로제티는 처음에 시 제목을 「고블린 훔쳐보기」(“A Peep at the Goblin”)로 정했으나 오빠 단테 로제티의 권고로 『고블린 마켓』으로 변경한다(Crump 884). 메어리 카펜터(Mary Wilson Carpenter)는 ‘peep’이라는 단어에서 “관음증적 욕망”을 읽어내며 작품이 “빅토리아조 성경제”의 맥락에서 여성의 욕망과 경험을 긍정한다고 본다(427-28).

4) 물론 로라는 다른 교훈을 전달한다.

인간에게 불가능한 요구였기 때문이다.

3. 로라의 욕망 다르게 보기

“이브의 진짜 목표는 지적 신성, 아담(그리고 신)과의 동등함이나 그들을 능가하는 우월함, 그리고 순수한 자기확인이었다”(Eve’s true goal is intellectual divinity, equality with or superiority to Adam (and God), pure self-assertion; Gilbert and Gubar 127)면, 로라가 과일을 욕망해서 얻게 되는 것은 성적 쾌락이다. 뽕양고 붙고 거무스름한 색깔, 부드럽게 으개지는 감촉, 입안을 가득 채우는 달콤한 과즙……. 과일의 많은 요소들이 과일과 그것을 먹는 행위를 성적인 것과 결부시키고, 로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로라는 성적 함의를 지니는 자신의 신체 일부, 머리카락을 내어주고 고블린들과 함께 앉아 과일을 즐긴다. 고블린들은 “우리와 함께 앉아 우리와 함께 먹는 영광을 베풀어달라”고 청한다(368-70). 지니(Jeanie)의 경우에도 고블린의 과일이 가진 성적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지니가 기억나지 않니
그녀가 어떻게 달빛 속에서 그들을 만났고,
그들의 다양하고 많은 선물을 취했으며,
그들의 과일을 먹고 그들의 꽃을 썼는지.
.....

리지는 무덤 속에 있는 지니를 생각했다.
신부가 되었어야 했으나
신부들이 가지길 바라는 즐거움 때문에
병들어 죽어버린 지니를.

Do you not remember Jeanie,
How she met them in the moonlight,
Took their gifts both choice and many,
Ate their fruits and wore their flowers.
.....

She [Lizzie] thought of Jeanie in her grave,
Who should have been a bride;
But who for joys brides hope to have
Fell sick and died. (147-50, 312-15)

고블린을 만나 그들의 달콤한 과일을 먹고 그들이 씌워주는 화환을 쓴 지니를 고블린들의 신부라 불려도 무방할 것이다. 그녀가 고블린들과 함께 누렸고 결국 그녀의 생명

을 앗아간 즐거움은 결혼한 신부들이 가지길 바라는 즐거움이었다고 한다. 성적 쾌락이라 읽을 수 있는 이 즐거움을 너무 빨리, 너무 부적절한 상대들과 꺾어버린 지니는 이른 나이에 병들어 죽음을 맞는다.

여성들이 결혼 범주 바깥에서 성적 쾌락을 즐기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던 19세기적 배경에서 쾌락을 욕망하고 그것을 맞본 지니나 로라는 사회적 규범의 견지에서 '타락한 여성'(fallen women)이다. 가정의 범주로 금 그어놓은 경계를 벗어나는 모든 행위—매춘, 야망, 성욕, 간통—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여성에게는 모두 타락이었던 것이다. 일례로 캐년 버로우(Canon Burrow)는 1867년 연설에서 집 없는 여성, 고아나 매춘 여성을 돕는 “구조 활동이 여성답지 않은 권위의 발달을 조장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표출했다. 여성에게 주어진 규범과 위치를 어기는 반항이—이브의 예에서 확인되듯이—타락의 시초로 여겨졌음은 물론이다(Carpenter 423). 하지만 로제티는 로라가 자신에게 부과된 규범을 어긴 데 대한 일반적 판결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 카펜터의 지적처럼, “로라의 욕망은 작품 어디서도 비난 받지 않는다”(426). 로라가 시름시름 앓는 것은 욕망의 직접적 후유증이 아니라 한번 경험한 만족을 더 이상 채울 수 없다는, 계속 과일을 맛볼 수 없다는 욕망의 좌절 때문이다. 로제티는 타락한 여성의 전형으로 그려질 수 있는 로라의 경험에 타락이라는 오명을 씌우지 않은 채, 당대를 횡단하지만 어디선가 꺾이는 욕망의 그래프를 보여준다.

물론 “금지된 과일”(the fruit forbidden; 479)을 맞본 여성이 비난 받지 않는 방법이 있기는 했다. 19세기 어떤 박애주의자들은 타락한 여성을 “행위자가 아닌 희생자로 만듦으로써” 그들을 오명에서 구원하려 했고, 예술가들은 작품 속에서 때로 죽음을 통해 그들을 사면해주기도 했다(Auerbach 157-58; 161). 크리스티나 로제티가 로라를 그려내는 방식은 구원이나 사면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시는 오명을 털어준다는 명목으로 여성의 삶이나 욕망을 부정하지 않는다. 고블린의 과일을 탐하고 돌아온 로라에게, 리지는 늦게까지 밖에 머물며 고블린의 과일을 맛보면 안 된다고 “현명한 나무람”을 던지지만 로라는 거기에 ‘그게 얼마나 맛있는데. 너에게도 내일 가져다 줄게’라는 내용의 천연덕스러운 대꾸로 응수한다(142). 리지의 긴 비난과 이어지는 로라의 반박—고블린 과일에 대한 긴 찬양—뒤에는 바로 두 자매가 다정하게 껴안고 잠드는 장면이 등장한다. 고블린 과일에 대한 두 사람의 논의는 리지의 재비판 없이 로라의 목소리로 막을 내리는 것이다. 기독교 신화에서 과일 먹기가 유죄이고 인간의 존재 양식에 치명적, 결정적 변화를 야기하는 반면 이 시에서 과일을 먹는 일 자체는 별로 대단하지 않다.

과일 섭취가 두 사람의 관계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D. M. R. 벤틀리(D. M. R. Bentley)는 로라와 리지가 함께 잠드는 평화로운 모습에서 두 사람의 차

이보다 동질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지적한다(72).⁵⁾

금빛 머리를 나란히 하고,
한 등지 속 두 마리 비둘기 같이
서로의 날개에 파묻힌 채,
그들은 커튼 쳐진 침대에 누웠다.
한 줄기에서 나온 두 송이 꽃 같이,
두 개의 갓 떨어진 눈송이 같이,
장엄한 왕을 위해 금으로 끝을 씌운
두 개의 상아 지팡이 같이.

Golden head by Golden head,
Like two pigeons in one nest
Folded in each other's wings,
They lay down in their curtained bed:
Like two blossoms on one stem,
Like two flakes of new-fall'n snow,
Like two wands of ivory
Tipped with gold for awful kings. (184-91)

제롬 맥간(Jerome McGann) 또한 이 장면에 대해 “로라는 근원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고블린의 기준에서야 그녀가 타락한 여자겠지만 시는 독자들이 그런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개입한다”고 주장한다. 로라의 타락에 대한 추상적 비판을 자매가 쌍둥이 같은 모습으로 평온히 잠드는 장면의 묘사가 견고하게 막아서고 있다는 것이다(120). 맥간의 논의를 따르자면 그녀를 타락한 여자로 보는 당대의 담론이야말로 고블린적인 것이 된다. 시는 로라의 호기심에 도덕적 비난을 가하지 않는다. 어떤 설명도 주어지지 않은 채, 성애적인 인상마저 남기는 자매의 껴안고 잠든 육체가야말로 작품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그려진다. 그렇기에 크리스찬 천들러(Christine Chandler)가 아이들을 위한 동화로 이 시를 윤색할 때 “호기심과 위반에 대한 경고”를 일부러 삽입해야 했던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Kooistra 188).

4. 죽거나 혹은 자매가 있거나

로라는 병든다. 과일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배탈이

5) 윈스턴 웨더스(Winston Weathers)는 이 대목이 드러내는 동일성을 근거로 이 자매들이 한 자아의 두 측면임을 주장했다(82).

아니라 채울 수 없게 된 욕망이 문제다. 스웨덴에서 성 판매자는 처벌받지 않지만 구매자는 처벌받는 것처럼, 시는 로라의 욕망을 비난하지 않지만 “사악한 사람들”, 고블린의 거래에는 문제를 제기한다(437). 로라가 리지에게 “내일 밤엔 더 많이 살 거야. 너에겐 자두를 갖다 줄게”라고 말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로라는 내일도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과일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단 한 번의 경험으로 그녀는 “눈멀고 귀머어” 더 이상 고블린들을 만날 수 없게 된다(167-70, 259). 로라는 자신이 참여한 거래의 본질을 몰랐다. 그녀가 아무것도 모른 채 달콤한 과육을 다 빨아먹은 뒤 “빈 껍질을 던져 버렸듯이” ‘시장’(market)의 생리는 냉혹하다(137). 서로 원하는 것을 제공한다는 얼핏 공정해 보이는 가면 뒤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이익을 극도로 추구하고 필요에 의해 사고 소모하고 버린다. 고블린 마켓에서 여성이 공정한 거래와 욕망의 주체라는 환상은 처녀성이 여전히 1회적인 것으로 취급 받고 조금만 규범의 금 밖으로 넘어가면 ‘타락’이라는 오명 아래 존중할 만한 여성으로 대우받지 못하게 되는 여성의 취약한 현실을 가린다.

고블린들은 “상인”이라 불리지만 이들이 정녕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처녀들이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과일을 먹는 것이다. 고블린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금기의 저편에 있는 처녀들을 피어내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게 하는 것이다. 처녀성이 1회적이라고 간주되었듯이, 과일을 먹은 처녀들은 더 이상 유혹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고블린과의 거래가 타락이라 불리는 상태로 이끄는 ‘넓은 길’이라는 것은 길게 나열되는 과일들의 목록에서 ‘사과’가 항상 제일 먼저 언급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5, 352). 고블린은 욕망의 해방, 천상의 만족을 약속하지만 그 동전의 뒷면이 죽음이라는 사실은 비밀에 부친다. 거래라는 이름으로 얼핏 공정해 보이는 고블린과의 접촉은 실상 고블린들에게는 티끌만한 상처 하나 남기지 않고 처녀들을 죽게 만든다.

도로시 멀민(Dorothy Mermin)의 정확한 지적처럼 고블린은 “성적 욕망의 유혹을 의미하지만, 이 섹슈얼리티는 결혼이나 자식과 무관하다. 지니의 무덤에서는 어떤 폴도 자라지 않고 로라가 가져온 과일 씨는 싹트지 않는다.” 고블린들은 “항상 여름이고”, “모든 것이 여름 날씨에 함께 익어가는” 탈시간적인 “과수원”(Bower)에서 과일을 따온다(152, 15-16, 151).⁶⁾ 항상 여름이고 꽃과 과실이 무성하지만 계절의 순환 없는 풍요가 결국은 불모성에 다름 아닌 “과수원”의 모습은 에드먼드 스펜서(Edmund Spenser)의 『요정여왕』(*Faerie Queene*) 2권에 등장하는 “향락의 내원”(內園; Bower

6) 고블린들은 “우리 과수원의 과일”(our orchard fruits; 304)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과일의 출처로 ‘orchard’ 대신 ‘bower’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시에서는 두 단어를 모두 ‘과수원’이라 번역한다. 『요정여왕』을 언급할 때는 같은 단어를 ‘내원’(內園)으로 번역한다.

of Bliss)을 연상시킨다.⁷⁾ 싹트고 꽃피어 열매 맺는 생명의 순환과 관계없는, 자연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고블린의 과일이기애 그 씨에서는 싹이 나지 않으며, 고블린에게 사로잡힌 지나는 계절의 순환을 버티지 못하고 “첫서리가 반짝이고, 서늘한 겨울의 첫눈이 떨어질 때” 죽게 된다(318-19). 같은 불모의 열정에 사로잡힌 로라의 모습은 “불꽃”으로 묘사된다(218). 그리고 더 이상 떨감이 채워지지 않는 불꽃의 당연한 귀결처럼 “그녀의 불길은 스스로를 태워 꺼져만 간다”(279-80). 로라가 생명의 흔적 없는 “메마른 사막”을 헤매는 꿈을 꾸는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290).

여기 생명의 불꽃을 다시 불어넣는 사람은 리지이다. 늑대는 위험하니 절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이 어른들의 경고였다면, 크리스티나 로제티는 안전할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무구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과 경험의 세계에서 죽음에 이르는 것 사이의 이분법을 타파하고 ‘자매애’라는 제3의 가능성을 통해 욕망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삶을 긍정한다. 밤의 쾌락을 경험하고 “밤을 갈망하며”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로라를 구하기 위해 리지는 금지된 시간, “황혼에” 길을 나선다(214, 326). 그렇다고 리지가 처음부터 엄청난 자제력, 도덕심과 희생정신까지 같이 갖춘 완벽한 영웅은 아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리지는 고블린의 유혹이 두려워 혼자 달아나고, “로라를 편안히 해주기 위해 과일을 사고 싶지만 너무 비싼 대가를 지불하기 두려워” 망설이는 인물이다(310-11). “리지의 겁 많음이 비난 받진 않지만, 그 한계는 매우 분명하다”(McGann 117). 그런 그녀가 마침내 “좋고 나쁘고를 더 이상 재지 않고” 자매를 위해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그녀의 사랑은 더 큰 의미를 가진다(322-23).

5. 리지의 경험 재창조 하기

리지가 “자기 희생”과 “선악을 구분하고 악에 굴하지 않는” 실례를 통해 로라를 구했다는 멀민의 주장은 조금씩 표현은 다를지언정 대부분의 비평가들이 『고블린 마켓』에 대해 하는 말이다(112). 여기 더해 크리스티나 로제티가 리지를 통해 경험의 의미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눈 여겨 봐야 한다. 예를 들어 리지가 “고블린 남자들”(goblin men)을 찾아가 과일을 거기서 먹지 않고 포장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공격받는 장면이 그러하다(146). 고블린들은 거부하는 리지에게 떼로 달려들어 그녀의 입에 억지로 과일을 밀어 넣는다. 이 장면의 폭력성과 선정성은 『플레이бой』(Playboy)지가 이 시를 “음란한 고전”(Ribald classic)으로 명명하고 이 장면에 윤간을 상징하는 삽화를 첨부하게 했다(Kooistra 194).

7) 테런스 홀트(Terrence Holt)는 “과수원”이 “향락의 내원”에서 보이는 조롱을 패러디한다고 지적하지만, 두 공간의 성적 불모성보다 “성적 위협”의 유사성에 주목한다(52).

그들은 그녀를 짓밟고 난폭하게 밀었고,
 팔꿈치로 밀어 짓히고 떠밀었으며,
 손톱으로 핏물하고,
 소리지르고, 뽀뽀거리고, 야유하고, 조롱하며
 그녀의 가운을 찢고 스타킹을 더럽히고,
 그녀의 정수리부터 머리를 잡아챘으며,
 그녀의 부드러운 발을 밟아 뭉개고,
 그녀가 과일을 먹게 하려고 손을 붙든 채
 입에 과일을 우겨 넣었다.

They trod and hustled her,
 Elbowed and jostled her,
 Clawed with their nails,
 Barking, mewling, hissing, mocking,
 Tore her gown and soiled her stocking,
 Twitched her hair out by the roots,
 Stamped upon her tender feet,
 Held her hands and squeezed their fruits
 Against her mouth to make her eat. (399-407)

리지의 모습이 “그녀의 깃발을 끌어내리려고 광분한 함대에 의해 포위된 고귀한 처녀 마을”에 비유되는 것을 볼 때, 이 공격의 성적 암시는 보다 분명해진다(418-21). 하지만 29년 뒤에 강간을 당해 처녀성을 잃은 테스의 인생이 영망으로 망가지다 죽음에 이르는 것과 달리, 리지는 얻어맞고 짓밟히고 옷을 찢기는 등 집단 성추행에 비견되는 일을 겪고도 내적으로는 어떤 손상도 입지 않는다.⁸⁾ 시는 여자가 겪을 수 있는 경험과 그 결과에 대한 시대의 일반적 관념을 벗어난다.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용감해진 리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듣고 보기 시작하고’, … 그녀가 본 것은 결과적으로 그녀를 해하지 않는다”(Mermin 111, Rossetti 327-28). 리지는 한갓 육체적인 “고통, 통증, 육신거림”을 개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당한 일에 어떤 슬픔, 분노, 회환도 느끼지 않는다(447). 남성에게 짓밟혔노라며 눈물짓다 생을 마감한 문학작품 속의 (대부분 남성이 창조해낸) 많은 여성들과 달리 리지는 자신이 얻은 것으로 자매를 구할 수 있겠다며 웃음 짓는다.

시가 당대의 규범과 상식을 배신하고 있음은 다음 장면에서 보다 적절하게 밝혀진다. 고블린들을 쫓아버린 후 집으로 달려갈 때, “리지는 저주를 퍼부으며, 혹은 더 끔찍한 것을 품고 그녀를 뒤쫓는 고블린 남자들을 두려워하듯 뛰고 또 뛰었다.” 이 장면은

8) 출간년도 기준.

마치 폭력을 당한 뒤 처녀가 느꼈을 법한 감정을 서술하는 듯 보이지만, “하지만 한 마리의 고블린도 쫓아오지 않았고 그녀가 두려움에 곤두서 있던 것도 아니다”라는 다음 문장은 그 예상을 보기 좋게 뒤집는다(455-458, 459-60). 리지는 로라가 고블린의 과일을 먹고 돌아오던 그날처럼 “시간이 밤인지 낮인지 모른 채” 귀가한다(139, 449). 리지가 고블린을 만난 뒤 밤낮을 구분하지 못하는/않는 것은 로라와 동일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예전에는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가자”고 조르며 낮과 밤, 집과 골짜기를 분명히 구분하고 밤과 골짜기를 두려워하던 리지였지만 이제 그녀에게 그런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248). 그녀는 로라와 마찬가지로 무구와 자급자족의 세계를 넘어 쾌락과 밤의 세계를 알게 되었지만, “경험의 희생자가 아니라 주인이 될 정도로 자의식을 가지고 로라의 경험을 반복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낮과 밤의 경계에 위협받지 않는다(McGann 117).⁹⁾

로라와 마찬가지로 어떤 후회나 심적 고통 없이, 그러나 자신들을 둘러싼 상황을 인지하고 유혹/위협 속으로 뛰어드는 행동의 주체로서 리지는 고블린 과일의 과즙을 얼굴에 잔뜩 묻힌 채 돌아온다. 그녀는 병든 로라를 외쳐 부르고 로라에게 생명수가 묻은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한다. 앞서 리지가 혼자 고블린을 찾아간 장면과 더불어 작품에서 가장 자극적이고 논의의 소지가 많은 장면이다.

날 그리워했니?
이리 와서 키스해줘.
멍은 신경 쓰지 마.
끌어안고, 키스하고, 내 과즙을 훃아.
.....

나를 먹고, 마시고, 사랑해.
로라, 날 소중한 대해 줘.

“Did you miss me?
Come and kiss me.
Never mind my bruises,
Hug me, kiss me, suck my juices
.....
Eat me, drink me, love me;
Laura, make much of me. (465-68, 471-72)

멀민이 현대 독자들의 선입견을 걷어낸다면 “전혀 야할 게 없다”고 주장하는 이 장면에

9) 무구와 자급자족의 세계는 리지가 이 세계에 머물러 있는 한 로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문제적이다.

서(113), 카펜터는 “엄청난 동성간의 성적 에너지”를 읽어내고 “리지가 고블린 마켓에서 처음 발달된 성적 에너지를 재순환시킴으로써 자매를 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한다(417, 429). 즉, 리지가 고블린 과일 대신 자신의 몸을 로라가 “먹을 수/소비할 수”(consumable) 있게 만듦으로써 로라의 허기진 욕망의 방향성을 바꾸어 “(남성들 간의) 여성 거래”(traffic in women)가 아닌 “여성들 간의 교환”으로 로라를 구해낸다는 것이다(427). 리지가 소비재로서의 과일을 성찬으로서의 과일로 변화시키며 시장, 거래와 과일 섭취의 의미를 바꾸어내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두 사람이 “부인”(wives)이 되고 자식을 갖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무리 이성애가 주변화되어 마지막까지 남편의 존재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도 두 사람이 동성애적 이상향에서 서로를 성애적 대상으로 삼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주장하기는 힘들어진다(544).

현대적 의미의 ‘동성애’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두 여자 간의 애정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같은 고블린 과일이라도 리지가 애정의 힘으로 희생을 감수하고 손에 넣었을 때는 다른 의미가 생긴다. 로제티는 신선한 상징이나 완벽한 유토피아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세계에서 주어진 조건과 싸워 주어진 물질을 변화시키는 쪽을 택한다. 고블린 과일이 “핏속의 독”이 되어 로라를 죽이고 있을 때 리지가 자신의 몸에 물려온 과즙은 “불 같은 해독제”로 작동한다(555, 559).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의 “무구”(innocence)와 “경험”(experience)의 차이처럼 결국 관건은 누구와 어떤 마음,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고 어떤 태도로 세상을 보는가에 달려있다. 로라가 가져온 “과일 씨”는 “태양”과 “수분”이 있어도 싹트지 않지만, 리지가 가져온 “불 같은” 해독제와 로라의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눈물이 만났을 때, 바짝 말라있던 로라는 기적처럼 소생한다(286, 287). 자신으로 인해 리지가 망쳐졌으리라는 충격과 슬픔 속에서 “찌는 듯한 오랜 가뭄 뒤의 빗물처럼 떨어지며 그녀의 폭 꺼진 눈을 되살리는” 눈물이 그것이다(488-90). 로라가 후회와 깨달음을 얻고 “영혼을 쪼먹는 걱정을 선택한” 자신을 바보라 탓할 수 있을 때, 두 사람의 서로에 대한 애정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때, “해독제”는 진가를 발휘한다(511-12). 그렇게나 달콤했던 과일은 입에 “슬미고” 혀에 와닿는 과즙은 “쑥” 같이 쓰다(494).¹⁰⁾ 로라를 쪼먹고 메마르게 했던 것이 고블린들이 불어넣은 불모의 불길이었다면 리지의 애정은 로라에게 삶의 불길을 불어넣는다. 리지가 태양에 비견되는 생명의 불꽃을 건넬 자라는 것은 고블린들의 공격을 참아내던 그녀의 머릿결이 “금빛 불꽃”으로 그려질 때부터 예견되었다(414). 로라가 과즙을 삼키자 “불꽃이 로라의 혈관을 달려 퍼지고, 심장을 두드리며, 거기서 연기내는 불꽃을 만나 그것의 작은 불꽃을 삼켜버린다”(507-9). 새로이 로라의 몸을 흐른 생명은 죽음의 불꽃과 “생사의

10) 환웅 설화에서 곰도 인간으로 만드는 쑥의 씹쓸함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데 필요한 고통과 쓰라림을 의미한다.

싸움”을 벌이고, 그 귀결은 “죽음에서 빠져 나온 삶”이다(513, 524). 자매의 애정이 승리하는 순간이다.

홀트는 시에 나타난 언어를 분석하여 “이 자매가 힘을 얻는 순간에도, 승리의 형상들이 고블린의 흔적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59), 리지가 고블린 과일을 해독제로 바꿔내듯이 결국 주어진 물질과 언어에서 새로운 의미를 구가해낸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리지가 고블린들의 공격에 침묵으로 맞서고 고블린들이 말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침묵’이 반복된다는 이유로, 즉 리지의 승리를 가능하게 한 것이 고블린의 패배를 은유하는 데 사용된다는 이유로 리지의 승리가 의미없는 것이 아니다(Holt 57). 이는 오히려 같은 사건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같은 경험을 다른 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백합이라고 다 같은 백합이 아니다. 순결을 의미하는 백합과 짙은 향내로 죽음을 의미하는 백합이 있듯이, 시에서 백합은 유혹에 빠지는 로라의 목덜미와 고블린들의 공격에 버티는 리지에 비유되고, 로라가 새 생명을 얻은 날 아침에 피어나지만(83, 409, 536), 온전히 긍정적 의미만을 지니지는 않는다. 백합은 고블린의 과일이 자라나는 물가에 피어있기도 한다(182). 마찬가지로 다정한 자매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비둘기”라는 표현이, “비둘기처럼 푸드득거리는”(185, 346) 고블린을 설명할 때도 차용된다. 즉, 리지와 로라를 긍정하기 위해 쓰는 단어가 여전히 담론의 틀과 고블린의 힘에 붙잡혀 있다는 홀트의 논의와 달리, 로제티는 주어진 단어를 완벽하게 부정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사건과 용어를 전유하여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방식을 보여준다. 로라는 “금지된 과일”을 먹었지만 에덴에서 추방되지 않으며, 리지는 고블린들에게 성적/폭력적 공격을 받았지만 이것은 여성의 타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수난(passion)에 비견된다. 크리스티나 로제티는 주어진 가르침, 담론과 단어에서 시작했지만, 끝에 가서는 독자의 예상을 뒤집고 경험의 의미를 바꾸어내 언어로 이루어진 새로운 지평을 제공한다. 로라는 자신이 들은 것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처녀들을 옴아매던 금기나 억압이 아니라, 처녀들의 삶에 더 가깝고 그들의 삶을 행복하고 애정 충만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이야기 말이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5. 결론

『고블린 마켓』의 세계는 여성의 욕망을 부정하고 제거하는 세계가 아니라, 여성들이 경험하고 위협에 처하고 싸우고 이겨내어 결국 행복을 쟁취하는 세계다. 정답이라고 믿고 있던 것을 고수했다면 결코 알지 못했을 쾌락과 자신의 강함, 서로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는 세계이다. 이때서야 비로소 이 자매들은 과거의 억압적 담론이 아닌 새로운 이야

기를 만들어낼 준비를 하게 된다. 로라는 보고 들으면 안 되는 사람에서, 보고 듣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겪지만 자매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서사를 지배하는 사람으로 거듭난다. 로라는 자신의 경험을 정리, 재정리하여 거기서 자신이 원하는 교훈을 끌어내고 새로운 세대에 전달한다. 이제 어른이 된 로라의 가르침은 고블린을 피하라는 게 아니라 “자매 만한 친구는 없다”는 것이다(Mermin 117). 자매를 믿고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가슴에 새긴 이 딸들은 앞으로 서로를 지탱하며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더 새로운 얘기를 할 것이고, 결국 어떤 처녀도 고블린이나 자신의 욕망을 두려워 않는 세계를 만들어낼 것이다.

참고문헌

- Adams, James Eli. “Victorian Sexualities.” Tucker 125-138.
- Auerbach, Nina. *Woman and the Demon: The Life of a Victorian Myth*. Cambridge: Harvard UP, 1982.
- Bentley, D. M. R. “The Meretricious and the Meritorious in Goblin Market: A Conjecture and an Analysis.” *The Achievement of Christina Rossetti*. Ed. David A. Kent. Ithaca: Cornell UP, 1987. 57-81.
- Bloom, Harold, ed. *Rre-Raphaelite Poets*. Modern Critical Views. New York: Chelsea House, 1986.
- Bossche, Chris R. Vanden. “Moving Out: Adolescence.” Tucker 82-96.
- Carpenter, Mary Wilson. “‘Eat Me, Drink Me, Love Me’: The Consumable Female Body in Christina Rossetti’s *Goblin Market*.” *VP* 29.4 (1991): 415-434.
- Crump, Rebecca W., and Betty S. Flowers, eds. *Christina Rossetti: The Complete Poems*. Penguin Classics. New York: Penguin, 2001.
- Gilbert, Sandra M., and Susan Gubar. “‘*Goblin Market*’: The Aesthetics of Renunciation.” Bloom 123-132.
- Holt, Terrence. “‘Men Sell Not Such in Any Town’: Exchange in *Goblin Market*.” *VP* 28 (1990): 51-67.
- Kooistra, Lorraine Janzen. “*Goblin Market* as a Cross-Audienced Poem: Children’s Fairy Tale, Adult Erotic Fantasy.” *Children’s Literature* 25 (1997): 181-204.
- McGann, Jerome J. “The Poetry of Christina Rossetti.” Bloom 97-121.
- Mermin, Dorothy. “Heroic Sisterhood in *Goblin Market*.” *VP* 21.2 (1983): 107-

118.

Rossetti, Christina. *Goblin Market*.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M. H. Abrams, gen. ed. 7 th ed. Vol. 2. New York: Norton, 2000. 1760-61. 2 vols.

Thomas, Frances. *Christina Rossetti*. London: Virago, 1994.

Tucker, Herbert F. *A Companion to Victorian Literature & Culture*. Malden: Blackwell, 1999.

Weathers, Winston. "Christina Rossetti: The Sisterhood of Self." *VP* 3.2 (1965): 81-89.

ABSTRACT

Goblin Market as a Re-articulation of Female Experience against Discursive Regulation

Sunmi Kang

Christina Rossetti's *Goblin Market* is a re-articulation of female experience against discursive regulation. The poem having been written in Victorian Age, previous interpretations tended to reduce the poem into a mere moral fable, and sexual connotations in it into religious metaphor. The poem itself, however, resists this moral and religious frame. Though Laura and Lizzie—the sisters in the poem—violate norms that they should not contact with goblin men, they are not condemned for their desire, experience, and heroics. Instead, the poem presents an alternative perspective on their transgression, and allows them an original voice.

The world in the poem is already tinted with repressive discourse that they should not contact with goblin men while the maiden's everyday life is overlapped with goblin men. A precedent Jeanie exemplifies the restriction through her own death. Nevertheless, Laura pursues her desire to consume the delectable fruits and Lizzie, in her intention to help Laura, also see and traffic with the goblin men. However, the poem does not impose any blame on them. Even after Laura eating the forbidden fruits, Lizzie and Laura sleep in the same bed, hugging each other. The concrete, beautiful, and innocent scene, namely the poetic structure, prevents judging Laura conventionally.

When Laura fell sick as the consequence of indulging in goblin fruits that symbolize sexual pleasure, not knowing virginity is the only worthy female sexuality in Victorian social convention and goblin fruits never go under the circulation of life, Lizzie converts the meaning of barren goblin fruits by her heroic sacrifice and re-kindles the flame of life in Laura. Where Lizzie revolutionizes the meaning of goblin fruits, Christina Rossetti translates Lizzie's

violent experience with goblin men into an un-traumatic rescue work.

With newly acquired sense of self through experience, Laura and Lizzie become speaking subjects and articulate their history in their own perspective to next generation. For them, the most precious instruction to learn and teach in life, thus, is “there is no friend like a sister.”

Key Words re-articulation, female experience, discursive regulation, sisterhood, speaking subject, transgression